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24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월 10일 (음력 11월 24일) 수요일

‘갈길 먼’ 금호타이어 정상화...노·사 ‘이견’

채권단·사측 “노조, 임금동결·삭감 자구안 먼저 받아들여야”

노조 “자구안 동의 요구 전 중국공장 처리·부채탕감 선행돼야”

금호타이어 정상화 방안 마련을 놓고 노·사·채권단이 이견을 드러낸 채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 간 실무 접촉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호 회장이 전날 노조를 방문해 노·사가 협력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고 제안한 후 노조가 동의해 9일부터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자구안 방식에 대한 이견’ 때문에 본 교섭은 열리지 않고 일부

실무협의만 진행 중이다.

이날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채권단이 이미 한 차례 유예한 금호타이어 채무 1조3000억원에 대한 추가 상환 연장 여부가 오는 26일 결정된다.

사측은 26일 이전까지 노사가 ‘임금삭감·동결’ 등이 포함된 자구안을 먼저 제시해야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사측이 노조에 제시한 자구안은 생산직 191명 정리하고 임금 총액 기준 30% 삭감, 일반직 인원 감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측에 이어 채권단도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노조가 임금삭감 등이 포함된 자구안 마련에 먼저 동의할 것을 요구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의 입장은 다르다. 정상화

방안 마련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날 기자간담회를 연 금호노조 금호타이어 광주전남지부 광주지회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동결·삭감 등이 포함된 자구안에 대해 먼저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자구안 동의 요구에 앞서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중국 공장 문제 처리와 총 3조9000억원에 달하는 부채 해결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될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 “2016년 인단협이 해를 넘기고 2018년이 됐는데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며 “인단협 해결도 자구안 동의의 선결 조건 중 하나”라고 밝혔다.



골목 제설작업 많은 눈이 내린 9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골목길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Photo漫評

다음 순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졌던 여러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4일 국정원 노물상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 노물, 국정농단 사건 등 총 22개 혐의를 받게 됐다.

법조계 인력에서는 향후 검찰이 이명박 정부 관련 적폐수사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후 검찰의 행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명박 정부 관련 각종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군 사이버사령부 정지 권여 사건 수사, 이람 에미리트(UAE) 원전 이면 계약 의혹 등이 주요 대상으로 꼽힌다.

이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수사도 진행 중이다. 바로 다스 실소유주 의혹 관련 수사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자료사진=뉴시스

이제 당신 처러인 것 같는데...

박근혜

나 말이어?

이명박

다 알면서... 준비나...

박근혜

‘최대 오리 산지’ 나주시 또 고병원성 AI 확진 비상

평창동계올림픽 한 달 여 앞두고 국내 먹거리 불안

국내 최대 오리 산지로 꼽히는 전남 나주에서 또다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확진 판정이 나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

이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신고된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최종 정밀검사를 진행

한 결과, AI(H5N6형) 바이러스로 확진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겨울 들어 나주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두 번째다. 지난 29일에는 나주 종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고병원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불과 10여일 간격으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나타났다.

지난 4일에는 국내 최대 닭 산지인 포천의 신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세계적인 행사인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국내 먹거리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

농식품부는 고병원성이 확진되기 이전인 지난 8일부터 해당 지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을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H5 형원 확인과 동시에 강화한 방역조치를 시행해 추가 발생을 방지토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활기찬 산업현장!

노·사 갈등을 넘어 상생할 수 있는 전남노사민정 사적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 노·노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라남도 노사갈등 조정해결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에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